

세계적인 미디어 학자인 미국의 클리포드 크리스천(Clifford G. Christians) 일리노이대학(UIUC) 명예교수가 내한하였다. 본지에서는 국민일보와 공동주관으로 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 이태형 소장의 인터뷰 진행과 총신대 신국원 교수의 통역으로 그를 만나보았다.



미디어 윤리학의 대가, 클리포드 크리스천 Clifford Christians

시대여, 진리로 진리를 소통하라

☞ 인터뷰어_이태형(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 소장), 통역_신국원(총신대 교수)

클리포드 크리스천은 학부에서 고전어학을, 풀러신학교에서 인류학과 선교학을 공부하고, 남가주대학에서 언어학을 수학하였다. 1974년 일리노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10년 은퇴할 때까지 동 대학에서 가르쳤으며, 16년간 일리노이가 자랑하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이태형 소장(이하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디어, 도 대체 '미디어'란 무엇입니까?

클리포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당시에는, '미디어'하면 주로 출판되는 것들, 첫째는 신문, 그 다음은 잡지, 그리고 책들이었습니다. 이후 방송, 라디오, 텔레비전 등으로 바뀌었구요. 즉, 저널리즘에서 브로드캐스팅으로, 브로드캐스팅에서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프로그램, 광고나 정치 연설, 담화를 쓰는 방법 등의 미디어 학문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의 '미디어'에는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이 민주 정치의 핵심이기에 관련 학문들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윤리를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면 외에도 그것을 통해 정치적인 설득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의 요소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출판 미디어에서 방송 미디어로, 다시 지금의 디지털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이 모두를 포괄하는 넓은 관점의 확장된 미디어말입니다.

제가 미디어와 미디어 윤리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리' 곧 진리를 어떻게 소통하느냐입니다. 영화나 신문, 음악, 무엇을 만들든지 중요한 것은 진리의 소통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라면, 심미적으로 아름답기도 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진리와 소통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학 자체는 어떤 기술적인 것을 다룰 수 있지만, 저는 미디어 윤리, 도덕 철학을 기초로 한 미디어의 방향성에 관심을 갖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는 무엇인가, 언어를 통해 말하고 듣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만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유의 근본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미디어는 만유를 존재하게 한 이 말을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모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디어가 진리와 진실의 소통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미디어를 통한 진실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소통이 침체당하고 있을 때, 미디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클리포드: 그것이 미디어 윤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윤리에서는 항상 원리와 실천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관습이나 실천이 잘못되고 부패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리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원리는 늘 살아있고 정당합니다. 비록 현실에서 미디어가 하는 일들이 잘못되고 부패하였다 해도 그것이 원리 자체를 부정하거나 망가뜨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덕분에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는 보존되고 존재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기에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라도 진리는 보존·유지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선지자적인 진리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달될 때, 어떠한 삶으로 진리가 이루어지는지 선포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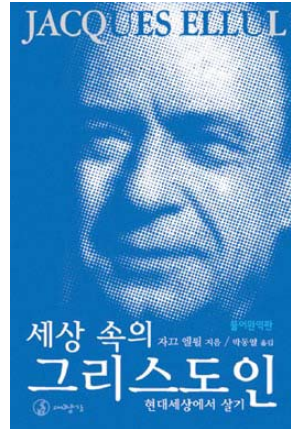
부패한 세상 속에서 미디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미디어 윤리를 가르칠 때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일종의 '모델링'입니다. 무엇을 하든 원리, 진리를 고수하며 그것을 사실 그대로 전하는 예시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속한 세계 속에서 진리를 대변하고 진리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모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 언론, 기독교 미디어가 해야 할 기준이자 의무입니다.



이: 자크 엘뤼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자크 엘뤼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요. 세상이라는 중력이 참 강합니다. 세상 속 미디어 현장에서 기독교 언론, 기독교 미디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클리포드: 여기서 엘뤼를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자크 엘뤼는 학계뿐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진리를 담고 있는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특별히 그 연구 영역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이는 오늘날 더없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라는 용어는 두 가지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에메스(Emeth)', 신약에서는 헬라어 '알레세이아(Alethei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공통적으로 숨겨지고 감춰진 것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드러낸다'에는 '사실을 드러낸다'와 '정확하게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미디어가 정확하고 공정하고 사실에 입각해 기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실, 사실 너머의 진실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Editor's Comment



세상속의 그리스도인
자크 엘뤼 | 박동열 역 | 대장간
신학자이자 철학자, 사회학자인 자크 엘뤼가 기독교적 관점으로 서양 사회의 흐름을 분석,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서양 사회 속 정치, 경제, 문화 등이 기독교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실존적 체험을 바탕으로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성경적 관점에서 본질적인 것을 드러낸다.' 보도한다는 것에는 어떤 관점(perspective), 즉 한 사람의 세계관(worldview)이 그 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전제가 되는 세계관이 다르면 많은 부분에서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섭리 등 전달하는 메시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관점이 영향을 미침을 보여줍니다. 모든 방면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등의 다양한 영역에 미디어가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클리포드: 일반적으로 언론은 사실만 보도해야 하는데, 기독교적 관점이 필요한 경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기독교 교육이 역사적으로 해 왔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의 경우도 120년 동안 이 문제, 즉 사실과 관점을 가르치는 것의 통합을 가지고 씨름해 왔습니다.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사실은 사실로, 관점은 사실 등의 관점 보도로 따로 넣는 것이 아닌 '통합'입니다. 보통, 과학에서 말하는 객관적 사실을 오늘날의 철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겁니다. 사실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따로 있고 거기에 관점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실 자체를 어떤 관점으로 보도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분파주의에 빠지지 않는 기본적인 관점을 훈련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은 매우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합니다. (옆에 있는) 신국원 교수(총신대)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기독교적 관점을 배우고자 학교에 옵니다. 총신대 같은 기독교학교에 기독교





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성애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relevance(접근 방법의 연관/적절성)”입니다. 이 측면에서 동성애를 보았을 때, 동성애가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명백한 죄이지만, 저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또 다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상황을 봤을 때 동성애라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약화됐기 때문에 신념은 있으나 미국 교회와 사회에 응답하지 못하였고 사회적으로 힘이 약해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널리즘에 있어 진리와 relevance라는 두 사실과 낯설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클리프드: 난제입니다. (웃음)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역사적 맥락에서 이렇게 해왔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현실적인 이슈를 가지고 접근을 물으셨는데, 특별히 동성애 같은 주제는 상당히 복잡해서 단순히 찬성/반대의 관점에서 다루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하다고 성경적인 원리를 유아무야할 수는 없고요, 전쟁을 선포

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원리에 의해 그 사람들의 목소리로 충분히 듣고 그 안의 실상에 대해서도 사랑을 가지고 보도하고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이: 신념과 시민교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처드 마우의 저서 <무례한 기독교>(Uncommon Decency)의 신념 있는 시민교양(convicted civility)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미디어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클리프드: 현실적인 문제에 좋은 롤 모델을 세워놓고 그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가이드하는 그런 라이트 윤리(Green light, 녹색 등)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속대학인 일리노이에서 기독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면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기독교는 편을 가르고 정죄하여 무언가 잘못하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식의 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속사회에서 기독교가 예수님을 대변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레드 라이트 윤리(Red light)에 사로잡혀 이것이나, 저것이나 편을 짓고 가차 없이 정죄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의 핵심은 정죄적인 선언이라기보다는 늘 죄인으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는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론이 되었던 학문이 되었던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세 명의 리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요셉, 다니엘, 에스더입니다. 이들은 지혜와 갈등 조정능력 등이 탁월했고 리더십, 통찰력, 용기도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왕에게도 존경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 사회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케이스였기에 더욱 흥미로운 예입니다.

특별히 멀티미디어 시대에 미디어가 주목하고 잘 드러내는 것이 싸움과 충돌, 갈등 이런 것들입니다. 미디어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현란한 논의에 관심을 기울일지라도 평균적으로 잘 소화된 균형잡힌 입장을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라이트 윤리 방식입니다.

교인들이 기독교적 관점을 배우러 오는데도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대들이 다를 수 있는데, 대중을 상대로 한 신문의 경우라면 일반 대중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독자까지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일리노이대학은 일반 대중의 욕구도 알지만 미디어 자체에 대한 통찰을 가진 사람,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개 그 바탕이 인문 교육입니다. 지금 일리노이대학에서는 각 영역의 전문가들과 미디어계 사람들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의 전문가들은 자기영역은 잘 알지만 대중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 부분은 미디어계에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고, 또 미디어에 있는 분들은 그쪽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바로 이런 자리가 관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례한 기독교
리처드 마우 | 홍병룡 역 | IVP
복음을 건지하면서도 세상 속의 기독교에 목소리를 높여온 학자 리처드 마우의 작품, 현대의 기독교가 가지는 과격함 십자군식 승리주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로 공적인 영역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고민과 탁월한 성찰이 담겨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주장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하며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은 독단성과 과격성을 벗어나 타인을 인정하며 정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 미디어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30여 년 전과 오늘날의 신문 영향력은 많이 다릅니다. 다각화된 다미디어 사회에서 미디어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클리포드: 인간의 본질은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방식인 미디어가 변하면 인간 본질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몇 년 전 제록스가 앞으로의 인쇄, 책의 미래에 대해 저명한 일곱 명의 박사를 투입하여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양질의 좋은 책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Quality books will exist forever),'라는 것이었습니다. 책이라는 기술, 책을 묶고 페이지를 넘기는 기술만큼은 다른 어떤 기술로 대체될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양산업(dying industry)이지만 동일한 기술의 인쇄 미디어에 똑같이 적용, 인쇄 미디어가 갖고 있는 특징들은 존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신들과 손자 세대가 신문을 읽는 형국은 아닙니다. 산업 투자 개념으로 볼 때 확실히 쇠퇴 일로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존속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 종이매체로써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야겠지요.

인: 크리스천 저널리스트들에게 특별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클리포드: 직업의식과 소명의식은 기본이며, 나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신실하게'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신국원 교수님이 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는 것과 주일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크리스천 저널리스트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구요, 어떤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종적으로 책임을 물으실 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요셉, 다니엘, 에스더는 세속 사회에서 일하면서도 심지어 통치자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무엇이 되었든 세상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인터뷰를 위해 통역으로 섬겨주신 신국원 교수님과 인터뷰어로 수고해주신 이태형 소장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인터뷰는 국민일보(2014년 4월 16일 보도)에 보도된 인터뷰와 함께 실시되었습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클리포드 크리스천의 좌담 학문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학문의 기로에 있는 이들에게

지난 4월 9일, 백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클리포드 크리스천과 그리스도인의 학자로서의 학문세계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여 소개한다.

소위 세속대학에서 공부하며 학자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리스도인으로 학문적 세계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대학에서 연구하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에게 학문의 우수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대학은 사탄의 놀이터와도 같은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의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맞서 싸웠던 어거스틴, 조나단 에드워즈, 아브라함 카이퍼의 역할이 우리의 필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싸움은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경 속의 사도 바울, 에스더, 요셉, 다니엘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왕들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기독교의 믿음과는 전제가 전혀 다른-존재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밖에 없고 인간의 이성을 의지해야 한다고 믿는- 세속적 자연주의가 팽배한 미디어 윤리학 속에서 제가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즉, 창조질서였습니다. 믿음의 다른 이들 사이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학문세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제가 미디어 윤리학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야이며 또 이를 증명해내는 것이 제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진리라는 개념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보편적인 가능성으로 보는 보통의 지식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에메스(Emeth), 진실됨에 주목하면서 진리라는 것이 하나의 증상이 아니라 도덕적 실재라는 관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도덕적 실재론, 세상에 진리라는 것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는 관점의 토대를 창조질서에 두고 나는 누구인가에서 논지를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공통점이 있으며 주어진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미디어 윤리학의 시작입니다. 진리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상항이론이나 대응이론 등 얼마나 재현해 내는가를 강조하고 필요에 따라 구성해가는 것은 적절하

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도 실재적인 대안, 존재적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존재 진리, 인간으로서 주어진 공통적인 윤리,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근거한 기본진리야말로 우리가 세속 학문세계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전제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4대륙의 학자 13명이 모여 모든 인류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윤리의 잣대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본래 규범(모든 문화에 깔려있는 가장 첫 번째 규범)이 가능한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화 속에서 기능하는 원초적인 기본 가치, 그것은 결국 '생명 존엄'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가 기독교 세계관과 같은 의미로 작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생명 존중 사상은 인간적인 대접의 황금률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원초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며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미디어 윤리학을 개발하게 된 저의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1980년, 대영박물관을 보며 (그곳 도서관에서 14년간 책을 파묻혀 살았다고 하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란 책이 세상을 뒤집어 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학자들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형제로 서로를 돕는 그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